



Original Article / 원저

陳修園의 標本中氣 理論 활용에 관한 연구

- 『傷寒論淺注』를 중심으로 -

이상협*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Study on the Praxis of the Zhen xiu-yuan's 'Tip, Root and Middle qi theory'

- focused on 『Shang han lun qian zhu』 -

Sang-Hyup Lee*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Zhang zhi-cong insisted the theory related to the 'Six-meridian qi transformation' , and Zhen xiu-yuan inherited that theory understanding six-meridian disease of 『Shang-Han-Lun』 . This emphasizes that the disease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Shang-Han-Lun』 is a disease caused by Six-meridian qi transformation, not a lesion of meridian itself. He said, "If you do not know brightly in the 'Tip, Root and Middle qi', you can not read the 『Shang-Han-Lun』 ."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Shang-Han-Lun』 by using the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Method : **First**, extract sentences related to 'Tip, Root and Middle qi' from the sentences of 『Shang-Han-Lun』 .
Second, the sentence is interpreted through the Zhen xiu-yuan's 『Sang han lun qian zhu』 .
Third,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examined and summarized.

Result : Zhen xiu-yuan proposed a clear and systematic theory that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Six-meridian in 『Shang-Han-Lun』 , by utilizing the discipline that 'Tip, Root and Middle qi'

Conclusion : The change of 'Tip, Root and Middle qi' is a very central theory that explains the properties of 'Yin and Yang' and mutual correspondence among Korean medicine theories. It also provides basic directions for understanding the changing patterns of disease.

Key words : Zhen xiu-yuan, 'Tip, Root and Middle qi', Sang han lun qian zhu.

I. 緒論

陳念祖는 字가 修園·良友이고, 호는 慎修이며, 福建省 長樂縣 江田鄉 溪眉寸 사람이다. 清代 乾隆 18년(1753년)에 태어나서 道光 3년(1823년)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71세였다.¹⁾

清代에 이르러서 考證學의 발달로 復古主義 사상이 유행하였는데, 의학계에 있어서는 尊經學派와 溫病學派의 양대학과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에 陳修園은 尊經崇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黃帝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등의 古典을 매우 숭상하여 깊이 연구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풍부한 臨床實踐과 결합함으로써 일생동안 많은 저작을 남겼다.²⁾

그의 저서로는 『南雅堂醫書 15種』이 있으니, 『神農本草經讀』 6권, 『靈素集註節要』 12권, 『傷寒論淺註』 6권, 『傷寒醫訣申解』 6권, 『傷寒眞方歌括』 6권, 『長沙方歌括』 6권, 『金匱要略淺註』 10권, 『金匱方歌括』 6권, 『醫學從衆錄』 8권, 『時方歌括』 2권, 『時方妙用』 4권, 『醫學實在易』 8권, 『醫學三字經』 4권, 『女科要旨』 4권, 『景岳新方砭』 4권 등이 있다.³⁾

그는 특히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청하여 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자신이 쓴 『傷寒論淺註』와 『金匱要略淺註』의 두 책을 주어서 문인들이 최상의 법으로 삼도록 요구하였는데,⁴⁾ 『傷寒論淺註·凡例』에 보면 “오직 張隱庵과 張令韶의 두 醫家만이 『傷寒

論』의 原文을 注解하면서, 비록 간간이 矯枉過正한 곳이 있긴 하지만, 五運六氣와 陰陽交會의 이치를 밝힌 것은 晁景仲이 『傷寒論』의 序文에서 ‘撰用『素問』·『九卷』·陰陽大論’하였다는 뜻과 완전히 일치하기에 내가 최고로 탄복하였다.”⁵⁾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에 보면 ‘五運六氣’와 ‘陰陽交會’의 이치를 밝힌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陳修園은 『傷寒論』의 六經病을 이해함에 있어 張志聰이 주장한 ‘六經氣化說’을 그 모태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傷寒論』에 나오는 三陰三陽의 질병이 대부분 六經의 氣化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지, 經絡 자체의 병변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五運六氣와 관련된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으로 잘 표현된 곳은 『傷寒論淺註·讀法』에 보면 나오는데, “六經의 本·標·中氣에 밝지 못하면 『傷寒論』을 읽을 수 없다.”⁶⁾라고 까지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傷寒論淺註·凡例』에서 『傷寒論』이라는 서적의 성격에 대해서 논한 것을 보면 “이 책은 비록 傷寒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百病이 모두 그 속에 있다. 안으로는 臟腑에서부터 밖으로는 形身과 氣血의 생성, 經俞의 會通, 神機의 出入, 陰陽의 變易, 六氣의 循環, 五運의 상생과 制지, 上下의 交合, 水火의 相濟 및 寒熱虛實과 溫清補瀉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이것은 疾病의 千가지 단서와 治法의 萬가지 변화에 이르기까지 六經 속에

- 1)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1097.
- 2) Yan SW. Chinese Medical Academic History. Seoul: Dae Seong Publisher. 2011:774.
- 3) Hong WS. The History of Chinese Medicine. Seoul: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1987:332.
- 4)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1098.
- 5)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73. “惟張隱庵·張令韶二家, 俱從原文注解, 雖間有矯枉過正處, 而闡發五運六氣·陰陽交會之理, 恰與仲景自序撰用『素問』·『九卷』·『陰陽大論』之旨吻合, 余最佩服.”
- 6)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75. “六經之本標中氣不明, 不可以讀『傷寒論』.”

* Corresponding author : Sang Hyup Lee.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52-57 Yangjeong-ro, Busanjin-gu, Busan, 47227, Republic of Korea.

Tel : +82-51-850-8610, Fax : +82-51-853-4036, E-mail: sanghyup@deu.ac.kr

• Received : November 1, 2017 / Accepted : November 12, 2017

모두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⁷⁾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陳修園의 『傷寒論淺注』 속에 나오는 구체적인 조문을 통하여 『素問·六微旨大論』 편에 나오는 標本中氣의 傳變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傷寒論』의 六經理論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本論

六氣의 標本中氣에 대한 내용은 『素問·六微旨大論』에 나오는데,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⁸⁾ 이라고 하였으니,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를 ‘本氣’라 부르고, 三陰三陽의 六經을 ‘標氣’로 불렀으며, 標氣와 서로 대응하여 表裏관계에 있으면서 반대되는 기운을 ‘中氣’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六經으로 포괄되는 臟腑·經絡에는 氣化라는 특성이 있는데, 외부 환경에 風寒暑濕燥火라는 六氣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六經에도 風火寒熱燥濕의 六氣가 있어서, 병이 발생할 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陳修園은 『傷寒論』의 傳經에 ‘正傳’과 ‘邪傳’의 구분이 있으며, ‘陰陽表裏之氣相傳’과 ‘六經連貫之氣相傳’의 구분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중 『內經』에 나오는 標本中氣의 傳變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陰陽表裏之氣相傳’과 관련된 내용을 『傷寒論』 조문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陽 ⇒ 少陰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太陽經은 ‘寒’을 本氣로 삼고, ‘陽’을 標氣로 삼으며, ‘太陽과 少陰’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太陽……中見少陰”이라는 문장은 太陽經의 本證이나 標證을 失治하거나 誤治함으로써 正氣를 손상하여 체내의 陽氣가 손상되면 少陰 陰化의 證으로 傳變하게 된다는 것으로, 관련된 조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 頗欲吐, 若躁煩, 脈數急者, 爲傳也.”¹⁰⁾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傷寒의 一日에는 太陽經이 邪氣를 받는데, 太陽은 少陰과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되기 때문에 만약 脈이 安靜되면서 數急하지 않는 자는 단지 太陽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少陰에 전해진 것이 아니며; 자못 吐하고자 하는 자는 곧 少陰의 ‘欲吐不吐’의 증상이 나타나려는 것이고, 만약 아울러 足少陰의 躁나 手少陰의 煩이 나타나고 그 脈을 진단했을 때 數急하면서 安靜되지 못한 자는 이에 太陽之氣가 병들어 中氣의 少陰之化가 나타나면서 傳變된 것이다.”¹¹⁾고 하였다.

본 조문은 ‘脈’과 ‘證’에 근거하여 질병의 전변 여부를 미루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질병의 전변은 陽證이 陰分으로 들어가면 逆證이 되고, 陰證이 陽分으로 나오면 順證으로 판단한다.

다만 『傷寒論』에 나오는 ‘日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正傳’과 ‘邪傳’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六經病의 傳變과 관련하여 張令韶가 말하기를 “正氣의 相傳은 스스로 정해진 기한이 있지만, 病邪의 相傳은 그 證狀에 따라서 치료해야지 반드시 日數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¹²⁾고 하여 太陽-陽明-少陽-

7)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74. “是書雖論傷寒, 而百病皆在其中. 內而臟腑, 外而形身, 以及氣血之生始, 經俞之會通, 神機之出入, 陰陽之變易, 六氣之循環, 五運之生制, 上下之交合, 水火之相濟, 寒熱虛實, 溫清補瀉, 无不悉備, 此疾病千端, 治法萬變, 統于六經之中.”

8) Wang B. Huang Di Nei Jing Suwen.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er. 1995:387-8.

9) Liu DZ. Sang han lun jiang yi. Seoul: Mul go gi sup. 2014:36-7.

10)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19. (본 논문에 나오는 條文의 순서는 明代 趙開美本 원문의 순서를 따른다. Publishing committee of Sanghanlun textbook. Sang han lun jing xie. Seoul: Iljung Co. 2003.)

11)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81. “傷寒一日, 太陽之氣受之, 然太陽與少陰相表裏, 脈若安靜而不數急者, 爲止在太陽, 而不傳于少陰也; 頗欲吐者, 卽少陰欲吐不吐之見證. 若兼見足少陰之躁·手少陰之煩, 診其脈數急而不安靜者, 乃病太陽之氣, 中見少陰之化爲傳也.”

太陰-少陰-厥陰의 차례로 서로 전해지면서 周而復始 하는 것은 ‘正氣의 傳變’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病邪의 傳變’은 일정한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脈證에 따라서 어느 부위로 전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7] “病有發熱惡寒者，發於陽也；無熱惡寒者，發於陰也.”¹³⁾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太陽의 底面은 곧 少陰이니, 太陽의 病을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少陰을 미리 살펴야 한다. 두 經의 標本과 寒熱이 같지 않기 때문에 醫者는 반드시 먼저 마음 속으로 확실하게 한 연후에야 매우 세밀하고 조리가 있을 것이다. 『內經』에 말하기를 ‘太陽之上, 寒氣主之’라고 하였으니 寒이 본이 되고 熱이 標가 된다. 또 말하기를 ‘少陰之上, 君火主之’라고 하였으니 熱이 본이 되고 寒이 標가 된다. ‘病有發熱惡寒’이라는 것은 太陽의 標陽에서 발생한 것이고; ‘無熱惡寒’이라는 것은 少陰의 標陰에서 발생한 것이다.”¹⁴⁾고 하였다.

본 조문은 惡寒의 증상이 나타남에 있어 ‘發熱의 有無’에 따라 外感病의 陰陽屬性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惡寒’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太陽病과 少陰病이라는 상대적인 두 종류의 정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69] “發汗，若下之，病仍不解，煩躁者，茯苓四逆湯主之.”¹⁵⁾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허약한 사람을 發汗시키면 장차 虛한 것을 더 虛하게 되고, 發汗을 시킨 후에 또 下法을 쓰면 곧바로 陰分으로 들어가서 危證이 된

다. 太陽病을 發汗시킨 후에 질병이 풀리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下法을 써서 질병이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면서 恹恹히 煩躁의 증상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은 太陽의 底面이 곧 少陰이기 때문이다. 發汗으로 心液을 손상시키고, 下法으로 腎液을 손상시켰으니, 少陰의 陰陽水火가 격리된 까닭이니 茯苓四逆湯으로 주관한다.”¹⁶⁾고 하였다.

본 조문은 太陽病을 誤治함으로써 陰陽이 모두 虛해지면서 ‘煩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치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61]번 조문에서 말한 “下之後，復發汗，晝日煩燥不得眠，夜而安靜，不嘔，不渴，無表證，脈沈微，身無大熱者，乾薑附子湯主之.”¹⁷⁾라는 조문과는 차이점이 있다.

[61]번 조문은 煩躁의 증상이 ‘晝日煩燥不得眠，夜而安靜’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낮에는 陽氣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陽虛한 체질이 陽氣의 도움으로 病邪에 항거하기 때문에 煩躁하게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陰氣가 왕성해지면서 病邪와 항쟁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太陽病을 誤治함으로써 인해서 ‘陽虛陰盛證’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변증론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 본 조문의 煩躁는 晝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煩躁不安한 것이니 단순한 陽虛證의 煩躁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誤治를 하였는데도 이렇게 증상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病邪를 받아들이는 대상의 체질적 차이(陰虛 또는 陽虛)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5] 心下痞，而復惡寒，汗出者，附子瀉心湯主之.¹⁸⁾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痞는 少陰의 本熱이 火亢한 것인데, 또한 太陽의 本寒이 병이 되는 것도 있으니

12)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76. “正氣之相傳，自有定期，病邪之相傳，隨其證而治之，而不必拘于日數.”

13)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20.

14)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82. “太陽底面，即是少陰，治太陽之病，即宜豫顧少陰，二經標本寒熱不同，醫者必先了然于心，然後絲絲入扣。『內經』云：太陽之上，寒氣主之，以寒爲本，以熱爲標也。又云：少陰之上，君火主之，以熱爲本，以寒爲標也。病有發熱惡寒者，發于太陽之標陽也；無熱惡寒者，發于少陰之標陰也。”

15)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55.

16)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97. “虛人發汗且爲虛虛，汗而又下，便入陰而危證矣。太陽病發汗，病不解，若下之，而病仍不解，忽增出煩躁之證者，以太陽底面即是少陰。汗傷心液，下傷腎液，少陰之陰陽水火離隔所致也，以茯苓四逆湯主之。”

17)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49.

18)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04.

또한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心下痞'는 少陰君火가 內結한 증상이고; '復惡寒'은 이에 太陽本寒의 氣를 얻은 것이며; 또한 '汗出'하는 것은 太陽本寒이 심하지만 標陽이 또한 虛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형상이니 附子瀉心湯으로 주관한다. 대개 太陽과 少陰은 標本이 相合하고 水火가 相濟하여 本氣 중에 스스로 陰陽과 水火가 있는 것이니, 陰陽互換의 이치를 깊이 아는 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¹⁹⁾고 하였다.

본 조문은 [154]번 조문에 나오는 大黃黃連瀉心湯의 熱痞의 증상에 '惡寒'과 '汗出'이라는 表陽이 虛한 증상을 겸하여 나타낼 때의 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만 附子瀉心湯을 복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三味, 以麻沸湯二升漬之, 須臾絞去滓, 內附子汁, 分溫再服.”²⁰⁾이라고 하였으니, 약물의 寒熱 성질이 현격한 苦寒한 약물과 辛溫한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각자의 효과를 어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려면 따로 달여서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게 한 이후에 복용할 때 섞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2. 陽明 ⇒ 太陰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陽明經은 '燥'를 本氣로 삼고, '陽'을 標氣로 삼으며, '陽明과 太陰'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陽明……中見太陰”이라는 문장은 陽明의 本氣인 燥가 태과하거나 標氣인 陽이 풀리지 않으면 太陰의 陰液을 손상시키는 병으로 傳變하게 되거나, 陽明의 燥熱이 太陰의 濕과 합해지면서 濕熱內鬱되어 병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된 조문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3] “食穀欲嘔者,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²¹⁾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지금 穀食을 먹으면 嘔하려고 하는 자는 陽明의 胃氣가 虛寒해서 그런 것이니 吳茱萸湯으로 주관한다. 만약 이 처방을 복용하고 嘔가 도리어 극심해지는 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처방의 잘못이라고 의심하는데 陽明과 太陰이 서로 表裏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食穀欲嘔는 陽明의 虛가 심하여 中氣인 太陰이 나타나서 中焦의 胃氣가 虛寒한 것이고, 吳茱萸湯을 복용한 후에 도리어 극심해지는 것은 太陰의 虛가 회복되면서 中氣인 陽明이 나타나면서 上焦의 胃口가 熱로 전화하는 것이니, 이것이 從陰出陽하는 것이고 寒去熱生하는 좋은 징조인 것이다.”²²⁾고 하였다. 하지만 “得湯反劇者, 屬上焦也.”에 대한 陳修園의 주석은 '從陰出陽'하는 치료기전으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傷寒論』 조문의 원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그 뜻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본 조문은 陽明病으로 胃寒하여 嘔逆하는 경우의 병증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胃는 食物을 수납하여 腐熟水穀한 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을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胃氣는 下行하는 것이 순조로운 것인데, 胃寒하게 되면 食物을 수납하지 못하고 胃氣가 上逆하기 때문에 食物을 먹으면 嘔逆하는 것이다. 그리고 中焦가 虛寒하다고 변증이 되어 吳茱萸湯을 복용하였지만 도리어 증상이 극심해지는 경우는 中焦의 虛寒이 아니고 上焦에 蘊熱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변증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47] “跌陽脈浮而濇, 浮則胃氣強, 濇則小便數, 浮濇相搏, 大便則硬,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²³⁾

19)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17. “痞爲少陰本熱火亢, 而有復呈太陽本寒爲病者, 亦須分別. '心下痞', 爲少陰君火內結之證; '而復惡寒', 乃得太陽本寒之氣; 而且'汗出者', 爲太陽本寒之甚而標陽又虛, 難以自守之象, 以附子瀉心湯主之. 蓋以太陽少陰, 標本相合, 水火相濟, 本氣中自有陰陽水火, 非深明陰陽互換之理者, 不可以語此.”

20)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04.

21)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42.

22)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33. “今食穀欲嘔者, 屬陽明胃氣虛寒也, 以吳茱萸湯主之. 若得此湯而嘔反劇者, 人必疑此湯之誤, 而不知陽明與太陰相表裏. 其食穀欲嘔者, 是陽明虛甚, 中見太陰, 爲中焦之胃氣虛寒也, 服吳茱萸湯之後反劇者, 是太陰虛回, 中見陽明, 爲上焦之胃口轉熱也, 此爲從陰出陽, 寒去熱生之吉兆.”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趺陽은 胃脈이다. 胃는 陽에 속하고 脾는 陰에 속한다. 지금 趺陽脈이 浮而濇하다고 했는데, 浮는 胃의 陽氣가 강한 것이고, 濇은 脾의 津液이 泄하기에 小便數한 것이다. 浮濇이 相搏하면 그 津液이 胃中으로 返入되지 않기 때문에 大便難한 것이다. 무릇 脾土는 胃를 대신하여 그 津液을 운행시키는 것인데, 津液이 적어지면 그 脾가 窮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麻仁丸으로 다스려서 胃의 陽을 瀉하면 곧 脾의 陰을 도와주는 것이다.”²⁴⁾고 하였다.

본 조문은 脾의 기능이 胃熱로 인해서 묽임으로써 정상적인 輸布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津液이 사방으로 퍼지지 못하고 膀胱으로 주입됨으로써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麻子仁湯을 사용하여 潤腸通便시켜줌으로써 胃腸의 燥熱을 제거시키는 것을 치료법으로 삼은 것이다.

[260] “傷寒，七八日，身黃如橘子色，小便不利，腹微滿者，茵陳蒿湯主之。”²⁵⁾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太陽의 發黃은 太陽의 標熱이 아래쪽에 있는 太陰의 濕氣와 합한 것이고; 陽明의 發黃은 또한 陽明의 燥熱이 안쪽으로 太陰의 濕化와 합한 것이다. 만약 病이 本氣에서 그치고 太陰과 합하지 아니하면 모두 發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太陰者，身當發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이라고 한 것이다.”²⁶⁾고 하였다.

본 조문은 陽明의 燥熱이 안으로 太陰의 濕과 합하여 생기는 ‘濕熱發黃’의 변증요점과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앞에 있는 [259]번 조문에서 “傷寒，發汗已，身目爲黃，所以然者，以寒濕在裏不解故也，以爲不可下也，於寒濕中求之.”라고 설명하고 있

는 ‘寒濕發黃’과 서로 감별 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少陽 ⇒ 厥陰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少陽之上，火氣治之，中見厥陰.”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少陽經은 ‘火’를 本氣로 삼고, ‘陽’을 標氣로 삼으며, ‘少陽과 厥陰’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少陽……中見厥陰”이라는 문장은 少陽의 本氣인 火가 亢盛하거나 標氣인 陽이 풀리지 않으면 厥陰經으로 침범하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2] “傷寒二三日，心中悸而煩者，小建中湯主之.”²⁷⁾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대개 지도리(樞)라는 것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樞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또한 樞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傷寒病에 發表의 약제를 지나치게 복용하면 惡風寒 등의 증상은 이미 풀리더라도 內虛의 증상이 점점 형성된다. 二日是 陽明主氣의 기간이고, 三日은 少陽主氣의 기간이라서, 外邪는 이미 깨끗해져서 少陽의 樞를 따라서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發表시킨 후에 虛弱을 지탱할 수 없는 병으로 少陽과 합하는 ‘心包絡으로 轉入된 것’이다. 包絡은 血을 주관하니 血虛하면 心中悸하는 것이고, 오로지 悸만 하지 않고 尙차 煩하는 것은, 煩이 心主의 血分으로 건너가고 樞脇의 氣分으로 건너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小建中湯으로 주관하는 것이다.”²⁸⁾고 하였다.

본 조문은 평소에 裏虛한 상태에서 외부의 邪氣를

23)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44.

24)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34. “趺陽者，胃脈也。胃爲陽，脾爲陰。今趺陽脈浮而濇，浮則胃之陽氣強，濇則脾之津液泄而小便數。浮濇相搏，其津液不能返入胃中，而大便則難。夫脾土爲胃行其津液者也。津液鮮少，則其脾無可奈何爲窮約？麻仁丸主之，瀉胃之陽即扶脾之陰也。”

25)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49.

26)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37. “太陽之發黃，乃太陽之標熱下合太陰之濕氣；陽明之發黃，亦陽明之燥熱內合太陰之濕化。若止病本氣而不合太陰，俱不發黃，故曰太陰者，身當發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也。”

27)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72.

28)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04. “蓋以樞者，內外之樞紐也，可從樞而外出，亦可從樞而內入。傷寒病，過服發表之劑，其惡風寒等症已解，而內虛之症漸形。至二日爲陽明主氣之期，三日爲少陽主氣之期，外邪既淨，無庸從少陽之樞而外出。而發表後，虛弱不支之病，轉入于所合之心包絡。包絡主血，血虛則心中悸，不獨悸而且煩者，以煩涉于心主之血分，而不涉于樞脇之氣分，故以小建中湯主之。”

감수하였을 때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表裏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裏虛'한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147] “傷寒，五六日，已發汗而復下之，胸脇滿微結，小便不利，渴而不嘔，但頭汗出，往來寒熱，心煩者，此爲未解也，柴胡桂枝乾薑湯主之。”²⁹⁾

陳修園이 본 조문에서 '心煩'하는 이유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心煩하는 것은, 少陽은 厥陰과 더불어 表裏가 되는데, 厥陰은 안으로 心包에 속하고 脈絡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총괄하자면 太陽의 病은 六日이 되면 厥陰의 氣가 지나가게 되는데, 少陽의 樞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니 柴胡桂枝湯으로 주관한다.”³⁰⁾라고 하였다.

본 조문은 邪氣가 풀리지 않고 少陽經으로 들어가 樞의 기전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微飲이 안에서 묵치고 陽熱이 잘 펼쳐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三焦의 '決瀆之官 水道出焉'하는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小便不利하게 되고, 邪熱이 上蒸하면서 頭汗出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64] “少陽中風，兩耳無所聞，目赤，胸中滿而煩者，不可吐下，吐下則悸而驚。”³¹⁾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少陽經이 스스로 받은 風邪는 吐法이나 下法을 통하여 上下 二焦의 氣를 손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吐下로 손상시키면, 곧 吐法으로 인하여 少陽 三焦의 氣가 손상되면 위로 厥陰의 心包와 합하여 悸가 되고; 下法으로 인하여 少陽 膽木의 氣가 손상되면 안으로 厥陰의 肝과 합하여 驚이 된다.”³²⁾고 하였다.

본 조문은 少陽中風의 증상과 치료의 금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少陽의 經氣가 울체되면 胸中이 滿

하면서 煩의 증상이 생기는 것인데, 有形의 實邪가 아니기 때문에 吐法이나 下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和解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4. 太陰 ⇒ 陽明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太陰之上，濕氣治之，中見陽明.”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太陰經은 '濕'을 本氣로 삼고, '陰'을 標氣로 삼으며, '太陰과 陽明'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太陰……中見陽明”이라는 문장은 陽明의 化生함을 얻지 못하면 臟寒의 병이 생기고, 만약 陽明의 氣가 태과하면 濕熱이 서로 아우르는 병이 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太陰病에 寒과 함께 熱이 있는 까닭이다. 관련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8]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繫在太陰。太陰當發身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至七八日，雖暴煩，下利日十餘行，必自止，以脾家實，腐穢當去故也。”³³⁾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傷寒에 脈이 浮而緩하고 手足이 自溫한 것은 太陰에 매여 있으면서 中氣인 陽明의 化生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陽明의 熱이 太陰의 濕과 합해지면 즉시 發黃해야 하는데, 만약 小便自利한 자는 濕熱이 아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發黃하지 않는 것이다. 七八日이면 또한 陽明主氣의 기간에 이르게 되어 한편으로 陽熱의 化生함을 얻게 되어서, 正氣가 邪氣와 더불어 다투면서 暴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暴煩하면서 下利를 하루에 10여 차례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그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은 太陰의 中氣인 熱化가 나타나는 것으로, 脾家가 實해지면서 倉廩에 있던 찌꺼기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³⁴⁾고 하였다.

29)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99.

30)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15.
 “少陽與厥陰爲表裏，厥陰內屬心包，而主脈絡故也。總之，太陽之病，六日而涉厥陰之氣，不能得少陽之樞以外出。若此，此爲未解也，以柴胡桂枝湯主之。”

31)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51.

32)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38.
 “少陽自受之風邪，不可吐下，以傷上下二焦之氣。若吐下以傷之，則因吐而傷少陽三焦之氣，上合厥陰之心包而悸；因下而傷少陽膽木之氣，內合厥陰之肝而驚。”

33)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57.

본 조문은 [187]번 조문에 나오는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是爲繫在太陰。太陰者，身當發黃，若小便利者，不能發黃，至七八日，大便硬者，爲陽明病也.” 라는 문장과 아주 유사하다. [278]번 조문에서 ‘暴煩，下利日十餘行，必自止’하는 것은 脾陽이 회복되면서 邪氣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太陰病이 나오려고 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187]번 조문에 나오는 ‘大便硬者’는 太陰의 寒濕證이 陽明의 燥熱證으로 傳變하면서 攻下法으로 치료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5. 少陰 ⇒ 太陽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少陰之上，熱氣治之，中見太陽.”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少陰經은 ‘熱’을 本氣로 삼고, ‘陰’을 標氣로 삼으며, ‘少陰과 太陽’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少陰은 標陰과 本熱의 상반된 성격이 있으니, 혹은 標를 따라서 寒化하기도 하고, 혹은 本을 따라서 熱化하기 때문에 少陰病에는 寒化와 熱化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少陰……中見太陽”이라는 문장은 少陰病이 太陽의 標陽을 만나게 되면 병이 풀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1] “少陰病，始得之，反發熱，脈沈者，麻黃附子細辛湯主之.”³⁵⁾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少陰은 標는 寒하고 本은 熱하며, 太陽은 標는 熱하고 本은 寒하다. 少陰病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마땅히 發熱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發熱하는 것은 少陰病이 太陽標熱의 化

生함을 만난 것이다. 이미 太陽의 標熱을 만났다면 그 脈이 마땅히 浮해야 하는데, 지금 진단하였더니 그 脈이 沈한 것은 비록 太陽의 標를 얻었지만 여전히 少陰의 裏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麻黃附子細辛湯을 사용하여 少陰과 太陽을 안팎으로 交和시켜주면 낫는다.”³⁶⁾고 하였다.

본 조문은 少陰病이지만 表證을 겸한 경우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少陰病 虛寒證이라면 發熱의 증상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작하면서 發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少陰과 太陽의 兩感證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少陰病으로 裏虛의 脈을 보이지만 아직 초기라서 下利清穀이나 手足厥冷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裏를 溫陽하고 表를 發汗하는 치료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302] “少陰病，得之二三日，麻黃附子甘草湯微發汗。以二三日，無裏證，故微發汗也.”³⁷⁾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少陰病인데 도리어 發熱하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2~3일에 이르게 되면 少陽主氣의 기간이 되는데, 陰樞가 陽樞의 힘을 빌어서 轉出시켜야 하기때문에 마땅히 麻黃附子甘草湯으로 조금씩 發汗시켜야 한다. 무릇 太陽은 表를 주관하면서 안으로 少陰과 합하고; 少陰은 裏를 주관하면서 바깥으로 太陽과 합한다. 지금 2~3일이 되었는데 少陰의 裏證이 없고, 단지 發熱이라는 太陽의 表證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씩 發汗시키는 것이다.”³⁸⁾고 하였다.

본 조문은 少陰病에 表證을 겸하였는데 세력이 아직 미약할 때의 치료법을 설명한 것으로, ‘無裏證’이라는 것은 少陰病的 嘔吐와 下利와 같은 전형적인 裏虛寒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太陽과 少陰의 表裏가 함께 병들었을 경우에는 오직 裏證이 없는 경

34)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41.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繫在太陰，而中見陽明之化也。陽明之熱合于太陰之濕，即時當發身黃。若小便利者，濕熱得以下泄，不能發黃。至七八日，又值陽明主氣之期，一得陽熱之化，正氣與邪氣相爭而暴煩，故雖暴煩下利日十餘行，必當自止。所以然者，太陰中見熱化，以脾家實，倉廩之腐穢當去故也。”

35)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63.

36)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46. “少陰標寒而本熱，太陽標熱而本寒。少陰病，始得之，當不發熱，今反發熱，是少陰而得太陽標熱之化也。既得太陽之標熱，其脈應浮，今診其脈沈者，爲雖得太陽之標，而仍陷少陰之裏也。以麻黃附子細辛湯主之，使少陰太陽交和于內外則愈。”

37)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63.

38)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46. “少陰病，反發熱，自始得之以及二三日，值少陽主氣之期，陰樞藉陽樞以轉出，宜麻黃附子甘草湯微發其汗。夫太陽主表，而內合于少陰；少陰主裏，而外合于太陽。今以二三日无少陰之裏證，止是發熱得太陽之表證，故微發汗也。”

우에만 發汗法과 溫經法을 병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04] “少陰病，得之一二日，口中和，其背惡寒者，當灸之，附子湯主之。”³⁹⁾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少陰病인데 君火가 펼쳐지지 못하면 太陽寒水의 氣가 작용한다. 병을 얻은 1일은 太陽主氣의 시기에 해당하고, 족히 그 숫자가 2일에 이르도록 火의 사용이 펼쳐지지 못하면 전적으로 燥渴의 증상이 없을 것이니 口中和한 것이다. 背는 陽이 되고, 陽中之陽은 心이며, 또한 太陽經은 그 운행이 背部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背가 惡寒하는 것인데, 이것은 心이 주관하는 陽이 쇠약해지면서 太陽의 寒이 旺盛한 증상이니 마땅히 灸法을 써야 한다.”⁴⁰⁾고 하였다.

본 조문은 少陰病으로 陽虛하기 때문에 陰寒이 왕성하여 생긴 병증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 것으로, ‘口中和’는 속에 熱邪가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背惡寒’은 속에 陽氣가 쇠약해져서 생긴 증상임을 알 수 있다.

6. 厥陰 ⇒ 少陽 傳變 관련 내용

『素問·六微旨大論』에 보면 “厥陰之上，風氣治之，中見少陽。”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厥陰經은 ‘風’을 本氣로 삼고, ‘陰’을 標氣로 삼으며, ‘厥陰과 少陽’이 서로 表裏가 되면서 相通하기 때문에 서로 中氣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중 “厥陰……中見少陽”이라는 문장은 厥陰은 陰의 극단이 되고 少陽은 陽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병증은 서로 轉化되는데, 少陽病이 厥陰으로 들어가면 逆證이 되고, 厥陰病이 少陽으로 나오면 順證

이 된다. 관련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6] “厥陰之爲病，消渴，氣上撞心，心中疼熱，飢而不欲食，食則吐蚘，下之，利不止。”⁴¹⁾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厥陰氣가 病이 되면 中氣인 少陽의 熱化가 나타나므로 ‘消渴’한다. 厥陰 중 肝木은 아래쪽에 있으며 心包는 위쪽에 있는데, 風木의 氣가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心包와 합하면 風火相擊하면서 ‘氣上撞心，心中疼熱’하게 된다. 火는 食物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飢’하는 것이고; 胃가 木의 克制를 받으므로 비록 飢하지만 ‘不欲食’하게 되는 것이다. 蛔蟲은 風木의 氣에 감촉되면 생기는 것인데 蛔蟲은 食物 냄새를 맡으면 횡격막 위로 올라가므로 ‘食則吐蛔’하는 것이다. 厥陰의 標陰은 아래쪽에 있는데, 陰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도리어 下法을 쓰게 되면, 陰만 있고 陽이 없으므로 ‘利不止’하는 것이다.”⁴²⁾고 하였다.

본 조문은 厥陰病의 提綱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증상을 살펴보면 上熱下寒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厥陰은 陰盡陽生의 장소로 陰陽과 寒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厥陰病은 대부분 寒熱이 錯雜한 증상들이 그 특징이다.

[331] “傷寒，先厥，後發熱，而利者必自止，見厥復利。”⁴³⁾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陰陽과 寒熱은 원래 互換하는 이치가 있다. 厥陰經의 傷寒은 먼저 厥陰의 標陰을 얻으면 ‘厥’하고, 뒤에 少陽의 中氣가 나타나면서 熱化하면 ‘發熱’한다.”⁴⁴⁾고 하였다.

본 조문은 厥陰病으로 下利와 厥, 그리고 發熱의

39)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65.

40)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46. “少陰病，君火不宜，而太陽寒水之氣用事，得之一日，正當太陽主氣之期，足其數至于二日，火用不宜，全無燥渴，故口中和，背爲陽，陽中之陽心也，又太陽其行在背，其人背惡寒者，是心主陽衰，太陽寒盛之證，當灸之。”

41)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78.

42)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52. “厥陰氣之爲病，中見少陽之熱化，則消渴。厥陰肝木在下，厥陰心包在上，風木之氣從下而上，合心包，風火相擊，則氣上撞心，心中疼熱。火能消物，故飢；胃受木克，故雖飢而不欲食。蛔感風木之氣而生，蛔聞食臭則上于膈，故食則吐蛔。厥陰之標陰在下，陰在下而反下之，在陰無陽，故利不止。”

43)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79.

44)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53. “陰陽寒熱原有互換之理。厥陰傷寒，先得厥陰之標陰則厥，後得少陽中見之熱化則發熱。”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傷寒의 邪氣가 厥陰經으로 들어가면 寒邪가 왕성해지면서 陽氣가 미약해진다. 陽氣가 陰에게 억제를 당하면 四肢를 충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四肢厥冷의 증상이 나타나고, 陽氣가 이미 虛하다면 升清降濁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下利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少陽의 中氣가 회복되면서 '發熱'과 같은 陽氣가 회복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호전된다는 것이다.

[365] “下利, 脈沈弦者, 下重也. 脈大者, 爲未止; 脈微弱數者, 爲欲自止, 雖發熱, 不死.”⁴⁵⁾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厥陰病으로 下利하는 경우에는 少陽 中氣의 化生함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少陽의 脈은 弦하면서 不沈한데, 만약 脈이 沈弦한 것은 少陽 初陽의 氣가 下陷한 것이므로 下利하면서 下重하는 것이다. 무릇 少陽은 陰中에서 처음 陽이 나오는 것으로 不及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太過해서도 안 된다. 만약 脈大한 것은 太過한 것이므로 下利가 아직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 脈이 微弱한 陰의 象을 보이면서 또한 數한 陽의 象을 보인다면, 陰中에 陽이 있는 것으로 少陽의 象에 딱 부합하기 때문에 下利가 그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內經』을 살펴보면 ‘身熱則死’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것은 中氣의 化生함을 만난 것으로 陰出之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發熱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다.”⁴⁶⁾고 하였다.

본 조문은 厥陰病 下利 중 ‘下重’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痢疾과 관련된 병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脈과 함께 證을 참고하여 厥陰病 下利의 豫後를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371] “熱利下重者, 白頭翁湯主之.”⁴⁷⁾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厥陰病인데 中氣인 火熱의 협조를 받아서 下利하는 것을 ‘熱利下重’이라고 하는 것인데, 熱이 鬱滯되어서 아래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氣機가 上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白頭翁湯으로 주관하는 것이다.”⁴⁸⁾고 하였다.

본 조문은 厥陰病 下利 중 濕熱로 인한 痢疾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汪荅友는 “下重은 厥陰經의 邪熱이 아래쪽으로 大腸의 사이로 들어간 것이다. 肝의 성질은 急速하기 때문에 邪熱이 심해지면 곧 氣滯하게 되고, 막혀있는 그 惡濁한 물건을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下重하는 것이다.”⁴⁹⁾고 하여 ‘下重’이라는 증상이 肝熱로 인해서 大腸쪽의 氣가 滯하여 생기는 증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79]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⁵⁰⁾

陳修園이 주석하기를 “厥陰은 少陽과 더불어 表裏가 되는데, 邪氣가 厥陰에 있으면 오직 厥逆하거나 下利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 만약 ‘嘔而發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臟의 邪氣가 다시 腑로 나오는 것이고, 陰으로부터 陽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陰邪가 變逆하는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少陽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⁵¹⁾고 하였다.

본 조문은 厥陰과 더불어 少陽이 서로 表裏가 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少陽病이 진행되면 厥陰으로 轉入

45)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91.

46)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60. “厥陰下利, 喜得少陽中見之化. 少陽之脈弦而不沈, 若脈沈弦者, 爲少陽初陽之氣下陷, 故利而下重也. 夫少陽爲陰中初陽, 不可不及, 亦不可太過. 若脈大者, 則爲太過, 其利未止; 若脈見微弱之陰象, 又見數之陽象者, 乃陰中有陽, 正合少陽之象, 爲欲自止. 考之『內經』, 有身熱則死之說, 而此得中見之化, 爲陰出之陽, 雖發熱, 不死.”

47)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92.

48)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62. “厥陰協中見之火熱而利, 謂之熱利下重者, 熱鬱于下, 氣機不得上達也, 以白頭翁湯主之.”

49) Nan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University. Sang han lun Yi Shi.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16:983. “下重者, 厥陰經邪熱, 下入于大腸之間. 肝性急速, 邪熱甚則氣滯, 壅塞其惡濁之物急欲出而不得, 故下重也.”

50)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294.

51)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462. “厥陰與少陽爲表裏, 邪在厥陰, 惟恐其厥逆下利. 若見嘔而發熱, 是臟邪還腑, 自陰出陽, 無陰邪變逆之患矣, 故當從少陽法治之.”

하여 들어가고, 厥陰病이 풀리면 少陽으로 轉出하여
 나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III. 結論

陳修園이 『傷寒論』 조문에 나오는 六經의 氣化學說
 을 설명하는 것 중 『素問·六微旨大論』篇에 나오는
 標本中氣의 傳變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太陽中見少陰”이라는 문장은 太陽經의 本證이
 나 標證을 失治하거나 誤治함으로써 正氣를 손상하여
 체내의 陽氣가 손상되면 少陰 陰化의 證으로 傳變하
 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陽明中見太陰”이라는 문장은 陽明의 本氣인 燥
 가 태과하거나 標氣인 陽이 풀리지 않으면 太陰의 陰
 液을 손상시키는 병으로 傳變하게 되거나, 陽明의 燥
 熱이 太陰의 濕과 합해지면서 濕熱內鬱되어 병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少陽中見厥陰”이라는 문장은 少陽의 本氣인 火
 가 亢盛하거나 標氣인 陽이 풀리지 않으면 厥陰經으
 로 침범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太陰中見陽明”이라는 문장은 陽明의 化生함을
 얻지 못하면 臟寒의 병이 생기고, 만약 陽明의 氣가
 태과하면 濕熱이 서로 아우르는 병이 됨을 말하는 것
 이다.

다섯째, “少陰中見太陽”이라는 문장은 少陰病이 太陽
 의 標陽을 만나게 되면 병이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少陰은 標陰과 本熱의 상반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혹은 標를 따라서 寒化하기도 하고, 혹은 本
 을 따라서 熱化하기 때문에 少陰病에는 寒化와 熱化
 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厥陰中見少陽”이라는 문장은 厥陰은 陰의 극
 단이 되고 少陽은 陽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병증은 서로 轉化되는데, 少陽病이 厥陰으로 들어가
 면 逆證이 되고, 厥陰病이 少陽으로 나오면 順證이
 된다.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은 한의학의 이론 중에서 陰陽
 의 속성 및 상호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론으로, 질병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
 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歷代의 醫家들
 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陳修園은 『素問』의 運氣 7篇 중에 나오는 標本中氣
 의 傳變規律을 활용하여 『傷寒論』 조문을 해석함으로
 써 『傷寒論』에 나오는 六經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
 하는데 좀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六經의 標本中氣 이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藥物의 운용이나 鍼灸의 활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
 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Nan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University. Sang han lun Yi Shi.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16:983.
2. Yan SW. Chinese Medical Academic History. Seoul: Dae Seong Publisher. 2011:774.
3. Wang B. Huang Di Nei Jing Suwen.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er. 1995: 387-8.
4. Liu DZ. Sang han lun jiang yi. Seoul: Mul go gi sup. 2014:36-7.
5. Zhang ZG. Zhong jing quan shu. Seoul: Dae seong Publisher. 1989:119-0, 149, 155, 172, 199, 204, 242, 244, 249, 251, 263, 265, 278-9, 291-2, 294.
6. Publishing committee of Sanghanlun textbook. Sang han lun jing xie. Seoul: Iljung Co. 2003.
7. Zhen XY. Zhen xiu-yuan Medical Books.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73-6, 381-2, 397, 404, 415, 417, 433-4, 437-8, 441, 446, 452-3, 460, 462, 1097-8.
8. Hong WS. The History of Chinese Medicine. Seoul: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1987:332.